

哲學 上으로 본 生存의 意義(四)

哲學의 定義와 實在探究의 形式

韓稚振

現代 天文學과 地質學은 空間의 無限뿐만 아니요 時間의 無限을 指摘한다. 우리의 地球는 맨 처음 瓦斯體의 星雲에서 始作하여 發達되어 온 것이라 한다. 地層이 發達되기 前에 벌써 數億萬年의 歷史가 잇섯고 生命이 또한 언제 부터 이 地上에 잇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 한다. 進化論의 依하면 動植物의 各種은 漸進的 進化와 分化의 作用을 通하여 보다 幼稚한 動植物의 形體로부터 進化되어 온 것이라 한다. 사람도 幼稚한 祖上에서 發展되어 왔스니 今日 黃白紅黑의 各色 人種은 그 前 共通한 原始的 祖上에서 分化된 것이라 한다. 이 動植物의 進化法은 優勝劣敗의 自然選擇이니 이 法則에 依하여 各種 動植物이 發生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엇던 生物이든지 環境과 適應이 되어야 生存하고 不然이면 滅亡한다. 그 適應作用에 잇서서는 自然的과 理知的의 두 方面이 잇스나 여기서 論及 할 것 업다. 以上 現代 科學的 智識으로써 發見한 우리의 生存 立脚地를 綜合하면 이러하다.

(一) 우리의 地球는 宇宙의 中心이 아니라 太陽을 中心하여 公戰하는 八個 行星의 一個 小星體에서 不過하다는 것이다.

(二) 우리의 太陽도 宇宙의 中心이 아니라 無數한 太陽 中の 一個이다. 이 無數한 太陽들은 우리의 太陽에 比하여 큰 것도 잇고 적은 것도 잇스며 쓰겁고 찬 것도 잇다. 그 相互의 距離로 말하면 數萬光年이 되어 우리의 좁은 心理로 想像이라도 하기 어렵다.

(三) 現代 天文學과 地質學은 時間의 無限을 認定한다. 無機界나 有機界가 다 過去 長久한 時間을 通하여 今日의 模樣이 되었다는 것이다. 現代 科學은 一般事物을 發達의 見地에서 보는 것이다.

(四) 사람은 獨特한 創造物이라는 것보다 有機界의 一部이다. 勿論 사람은 高尚히 發達하여 有機界의 最上位를 占領하였스나 그 一部인 것은 避치 못한다. 사람은 以後에도 無限히 發達 할 수 잇는 可能性을 가졌다.

四. 人生의 最後陣營

우리는 生存의 意義를 찾기 爲하여 以上과 가티 本體論과 宇宙論 上으로 探究하여 今日 이만한 生存의 立脚地를 樹立하게 되었스니 다 人類의 深刻한 批判의 結果이다. 그러면 以上の 모든 批判으로써 우리의 生存意義는 얼마나 深刻하여지고 鮮明하여졌는가? 우리 批判的 生活은 도리혀 苦痛의 生活이 아니 었는가? 今日 宗教 科學 哲學이 잇는 生活과 이 모든 批判이 업든 以前 生活을 比하여 어느 것이 幸福한 것이라 할가? 우리의 批判力과 理解力이 銳敏하여 질사록 우리의 不足과 環境의 不調和가 通하여 暴露되니 었더케 할가? 우리는 그만 落望하여 無智로 도라 가고 말가?

이 物質界에는 아직 不毛의 沙漠, 極寒, 極暑, 旱災, 水災, □□落下, 地震 등의 害惡이 잇고 精神界에는 利己, 貪慾, 不正, 疾視, 惡意, 高慢, 放恣 등의 惡□이 充滿하다. 이 모든 罪惡은 웨 이 世上에 잇는가? 그 무슨 意味일가? 우리의 高尚한 理想과 信念은 이 모든 外的 目的 害惡으로 因하여 挫折되기 쉬우니 우리의 生存意義와 以上 罪惡과의 關係는 었더한가? 實로 人生의 最後 使命은 이 모든 生存의 妨害物과 싸와 익이는데 잇다.

나는 世上의 苦痛과 障礙에 對하여 이리케 생각한다. 只今 우리의 有限하고 不徹底한 人生에게는 現代 이 世上-害毒만코 不完全한 이 世上이 도리혀 只今 人間性에 適合하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업다말하면 以上에 論한 諸般罪惡이 存在하는 것이 人生 生活上에 必要하다는 것이다. 웨 그러나 하면 惡을 對抗함으로써 人格이 向上되는 까닭이다.

實相 우리는 惡과 不義를 憎惡視하라 할 時에 善을 聯想치 안홀 수 업는 것이다. 또한 惡을 □滅하라 할 時에 善을 □迫함이나 되지 안히 할가하는 念慮도 업지 안아잇다. 德念으로 高尚하다는 忍耐나 勇猛이나 憧憬은 一面으로 利己的 肉慾을 豫想하고 잇는 것이다. 肉慾的 煩悶과 苦痛이 업시는 즉 이것들을 經驗해 보지 못하였드면 節制心 가튼 것이 저절로 出現하리라 할 수 업는 것이다. 이럼으로 惡과 不義가 當初부터 업섯드면 善이란 것도 생기 었슬는지 一大 疑問이다. 同一한 理致로 利己心의 反面인 公利心 가튼 個性도 其 背景에는 利己心, 肉慾, 人의 貪心을 豫想한 것이다. 利己心이 잇는 까닭에 公利心이 發하여 그것과 對抗하게 되는 것이다. 이럼으로 惡과 不義는 善과 義를 爲하여 잇는 것 갖다.